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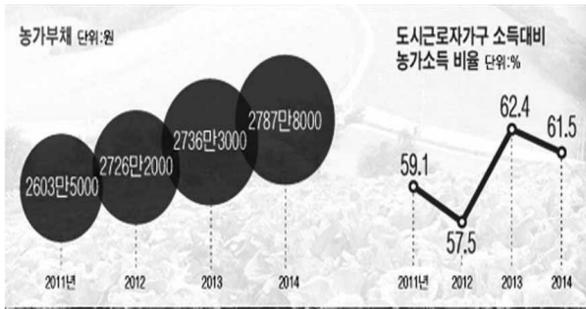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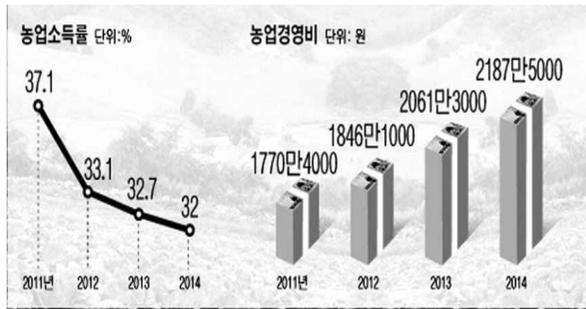
■ 통계청 '2014년 농가 경제조사' 들여다보니 ...

농가소득 3495만원... 농업경영비 빼면 1308만원

농가경제에 비상이 커졌다.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농업경영비 탓에 농업 소득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농업의 소득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가계 지출과 부채도 늘었다. 소득 증가가 더뎠으면서 노동 간 소득 격차는 전년보다 더 벌어졌다. 통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정 당국은 농가 살림살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하면서 농가 경제에 갈수록 주름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이를 토대로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가경제조사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소득 1.2% 늘때 경영비 4.9% 증가
부채도 계속 늘어 농가당 2787만원
지출 늘어 농사만으론 살림 '팍팍'



〈자료: 통계청〉

양돈농가만 소득 증가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3495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겨우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명목)이 5527만4400원에서 5681만5200원으로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농가소득 증가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소득 증가가 양돈농가 등 극히 일부 농가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가소득이 증가한 가 장 큰 이유는 축산 수입의 증가다. 지난해 축산 수입은 전년에 비해 22.6% 늘어난 반면 농작물 수입은 0.9% 하락했다.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돼지 도매(지역) 가격은 1kg당 평균 4741원으로 2013년 3559원 보다 33.2% 높았다.

지난해 도축마릿수도 1558만9000마리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채소류를 포함한 농작물 수입은 감소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가격지수는 배추(-32.7%)·무(-26.6%)·양파(-26.3%)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농약·인건비 상승 원인

지난해 농업경영비는 2187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높아져온 농업경영비는 2013년 처음으로 2000만원 선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종묘·비료·농약비뿐만 아니라 임금 등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이다.

농업경영비는 절대액이 많다는 점 외에도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10년간(2005~2014년) 농업경영비는 해마다 평균 4.9%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가 소득 증가율의 3.5배에 달한다.

지난해 농업경영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농업소득률은 32%로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했다. 농업소득률이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을 농업총수입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것이다. 쉽게 말해 농사로 번 돈 가운데 자재비·인건비 같은 경영비를 제하고 남은 돈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헛농사'를 지은 셈이다. 농업소득률은 2010년 37.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업 외 소득마저 감소했다. 1479만9000원으로 2013년 1570만5000원에 견줘 5.8%나 줄어든 것이다. 농업 외소득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농가들이 농업외소득을 통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감소한 것이다. 그만큼 농가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5ha이상 재배농 소득·부채 많아

지난해 농가의 가계 지출은 평균 3055만5000원으로 2013년에 견줘 1%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446만6000원으로 주거 및 수도요금, 교통·통신비 지출은 줄어든 반면 식품 및 비주류음료, 보건 등의 지출은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608만9000원으로 세금·이자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이 증가했다.

농가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 지난해 농가당 2787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1.9% 늘어난 것이다. 농가의 평균자산은 4억3182만3000원으로 전년에 견줘 7.8% 늘었다. 고정자산은 3억4989만4000원으로 토지·건물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고, 유동자산은 8192만9000원으로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이 주로 증가했다.

전·겸업별 농가 수지를 보면, 지난해 전업농가는 소득이 평균 2637만1000원으로 1종겸업(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은 경우) 4180만6000원, 2종겸업(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적은 경우) 4371만7000원보다 각각 36.9%, 39.6% 낮았다. 농사만 지어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전업농이란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가 없는 농가를 말한다.

영농형태별 농가 소득은 축산농가가 평균 7233만8000원으로 농가 평균보다 2.1배 많은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논벼 및 채소농가는 농가 평균보다 낮았다. 축산농가는 소득이 많은 대신 부채도 농가 평균에 견줘 2.5배가량 많았다. 경지 규모별로는 5ha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소득과 부채 모두 가장 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재수 aT 사장의

푸른농촌 이야기

KTX 개통 농식품산업 발전 계기로

호남권 주민들의 염원이던 호남 고속철도가 4월 개통했다.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최고 1시간33분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1시간 이상 단축됐다. 2시간권 이내로 줄어든 호남선 KTX를 자주 이용하면서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 호남선 철도가 처음 개통된 것은 1914년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수많은 기차역들이 일제의 농산물 수탈 창구로 이용되어 우리에게만 쓰러진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다. 국장지 역인 호남의 쌀과 풍부한 농산물이 철도를 통해 군산항으로 옮겨졌고 다시 일본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6.25 전쟁 당시에는 수천명의 피난민들이 기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으로 모여들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슬픔과 애환을 같이하면서 우리는 호남선이 고속철도 개통으로 100여년만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 서울과 호남을 3시간안에 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의 호남 관광이나 레저, 농어촌 체험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자체별로 관광, 물류,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계 방안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유적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남도 식도락 여행, 농어촌 체험관광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고속철 개통은 여객뿐 아니라 물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철도물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역 농특산물의 수송과 판매도 활성화될 것이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녹색불이 켜졌다. 호남을 중심으로 대 중국 농식품 수출도 본격

증진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우리 농산물과 원자재를 수출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들이 모여 있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혁신도시에 아직 해결해야 할 어려움도 많지만, 고속철도 개통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조기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푸드밸리 구축,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농식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를 맞아 중국과 중동 등 거대 식품 시장을 향한 수출 전진기지로써의 역할도 기대된다.

하지만 호남권 주민들이 문화생활, 쇼핑, 의료, 교육 등을 수도권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나, 지역주민들이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호남 고속철은 운행 초기에 다소 잡음이 있었다. 승객 이용이 안전문제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자들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운행편수 증차, 요금인하 등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광주송정역과 혁신도시 간 대중교통 활성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호남고속철 개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호남고속철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가 될 것이다. '고속철'이라는 날개를 단 호남선 철도가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식품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자.

5월 외식수요 증가... 짬채류 등 값 오를 듯

어린이날(5월 5일)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에는 외식수요 증가 영향으로 짬채류 등 일부 품목의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성장현)가 최근 펴낸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1508호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산물 품목은 안정적 인 공급으로 약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월 들어서는 외식수요 증가 영향으로 짬채류 등 일부 품목은 강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달 중순 쯤은 우천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호박 등 과채류가 최근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공급물량 증가로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다. 대부분 채소류도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다.

과일류 중 저장분 출하중인 사과·배는 거리가 미미한 가운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외 등 제철 과일류도 나들이철 소비 증가에도 출하여건 호전으로 안정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을 건
전대정문 2분, 후문 1/2 (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룸 10개, 4층주방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우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원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62) 527-7600
010-7384-7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광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앞 분식점 운영 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등부경철사 앞 매매가 15억
- ② 서구 상무지구 정영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광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 ⑤ 수원지구 모뎀7평 4층중 3층 85평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 ⑥ 수원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사무실임대〉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 이면도로 코너
- ☑ 엘리베이터 완비, 무료주차4대
-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 즉시입주가능, 내부시설완비
 ☐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적극추천

임대가 보3,000만 월 40만

062-527-76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서구 공효동 7층상가 (235㎡) 감평가6억5천/최저가2억9천
- ②북구 본촌동 민생빌딩3층중 2층 (5586㎡, 건276.18㎡) 감평가 14억/최저가9억6천
- ③북구 중흥동 씨나스전대/10층중 2층 (20,032㎡, 건46.96㎡) 감평가2억3천/최저가1억3천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①광안구 소촌동 (토400㎡, 건294㎡)감평가3억7천/최저가3억/세차장,카벤더
- ②서구 양동 (180.5㎡, 건259.2㎡)감평가3억3천/최저가2억3천2층건물/1층상 2층주택
- ③목포 산정동 (토63.75㎡, 건199.2㎡) 감평가1억3천/최저가7천100만 (3층건물/1층점포, 2~3층주택)

수익성 상가 (근린 사설, 통건물)

- ①담양 금성면(3층,펜션 (토30308㎡, 건2916㎡)감평가27억/최저가19억9천
- ②나주송월동(복합상가건물,예식장) (토8474㎡, 건11735㎡)감평가152억/최저가68억
- ③전주완산구호지동 (토502.453㎡, 건689.083㎡)감평가25억/최저가13억
- ④광양시중동 (토767㎡, 건3276.78㎡) 감평가26억/최저가21억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 ①광안구하남/공장 (토174.3㎡, 건2635.72㎡) 감평가14억/최저가6억5천
- ②북구 양산동/공장 (토3653㎡, 건4489.61㎡) 감평가36억/최저가 25억
- ③북구 월출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458.9㎡) 감평가10억/최저가10억
- ④광안구 정목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14.46㎡) 감평가36억/최저가29억
- ⑤광안구 월계동/무인텔 (토1522.5㎡, 건1999.65㎡) 감평가34억/최저가34억

바닷가 펜션 경매추천 물건

- ⑥경남 고성시회화면 (토13665㎡, 건267.16㎡) 감평가43억/최저가18억 (펜션바다근처전통캐주얼시설물(목수물건)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지원구함 (남,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우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 초개강)

- ①경매 기본교육 +실전위주 교육
- ②VI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엔피엘(부실채권))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1 담양군 금성면 (펜션,민박,식당) (토 9,200평/건882평) 감평가 27억 → 최저가 9억9천 (현재 펜션,민박,식당 단계순님 운영중)
- 2 전남영광군 법성면 (3층/근린주택) (토144평,건819평)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1층~2층상가 3층주택 (건물 바로앞 도로및 바다)

062-527-7600
010-7384-7800